

창단 20년 푸른연극마을 '연바람 소극장' 옛 자리에 재오픈



푸른연극마을이 광주를 떠나지 10년만에 귀향한다. 광주를 떠나기전 운영했던 연바람 소극장 바로 그 곳에 다시 극장을 열었다. 연극 '한남지'에 주인공으로 출연한 극단 오성완 대표(사진 왼쪽)와 아내이자 연극배우인 이당금씨 모습.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는 연극인생의 자양분... 이곳에서 다시 꿈꿉니다

창동 옛 인재갤러리·150석 규모

4월 한달간 개관페스티벌

"광주연극계 돌파구 마련하고 싶어"

지난해 창단 20년을 맞은 푸른연극마을은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극단이다. 특히 창단 3년후부터 전용소극장을 운영하며 다양한 레퍼토리를 무대에 올려왔다.

첫 극장인 '예담소극장'이 문을 연 건 1996년. 그해는 극단을 이끄는 오성완 대표에게는 절망과 희망이 교차하던 시기였다. 모든 공연자들의 로망인 소극장을 만든 해였고, 지금은 고등학생이 돼 함께 무대에 오르기도 하는 외동딸이 태어난 해였다. 하지만 처음으로 배신을 당해 소극장에서 쫓겨나고 자살 생각을 한 해이기도 했다. 딸 아이 이름을 '새로운 희망'을 뜻하는 새희로 짓고, 또 다른 꿈을 꾸기 시작했다. 시골 어머니의 도움으로 이듬해 소극장을 되찾았다.

2000년 푸른연극마을은 광주시 동구 장동 인재아트센터 지하 옛 바우하우스 자리에 또 다른 극장을 열었다. 극장 이름은 오 대표의 곡성 고향 마을 이름인 '연바람'으로 정했다. 연바람 소극장은 당시 지역 연극의 메카였다. 개관작 '꽃잎 저서 피'를 비롯해 푸른연극마을의 대표 레퍼토리가 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그 여자 이순례' 등이 무대에 올랐고, 푸른연극마을의 작품을 사랑하는 팬들도 생겼다.

2005년 연바람 소극장 폐관 공연 '귀향, 그리고 귀경'을 무대에 올린 오 대표는 보성으로 들어갔다. 아내인 배우 이당금씨, 동료들과 함께 보성군 구 노동초등학교 학동분교 5000여평 부지에 예술인촌 '연바람'을 열고 그는촌장이라는 이름을 달았다. 연극계 현실에 답답함을 느꼈고, 예술이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던 시기였다. 예술의 가치가 자본의 투입과 비례하는 시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속칭 '돈'되는 작품을 만들어야 했던 시절, 그들에게는 돌파구가 필요했다.

보성예술인촌은 이후 새로운 실험을 하는

장소가 되었다. 야외공연, 주민들과 함께하는 연극 등을 만들고 공연하며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갔다.

푸른연극마을이 10년만에 광주로 귀환한다. 오 대표에게는 늘상 마음에 품고 있는 꿈이 있다. 전남도 1화년 때 연극을 시작한 그는 현재 연극인으로 은퇴하는 게 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극의 고향인 광주로 돌아오고 싶었다.

"광주는 제 연극 인생의 자양분입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다시 꿈을 꾸고 싶었어요. 특히 오십을 넘고나니 떠남을 생각하게 되는데, 현장에서 은퇴하는 작업자로 남기 위해서는 광주에 거점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오 대표는 3년여전부터 예술의 거리 등을 중심으로 장소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연찮게도 옛날 "그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 당시에는 극장이 지하에 위치했지만 이번에 재오픈하는 연바람 소극장은 1층 옛 인재갤러리에 자리잡는다.

오는 4월께 문을 여는 극장은 기본 120석

에 보조석까지 더하면 모두 160석을 갖춘 규모다.

오 대표는 극장을 연극, 음악, 춤, 문학, 국악 등 모든 문화장르가 상시적으로 펼쳐지는 문화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또 극장기획사, 극작가를 모집, 전문적 운영도 모색한다. 보성연극촌은 계속 유지하며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4월 한달간은 연극, 음악, 무용 등 장르별 개관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연극쪽에서는 지난해 푸른연극마을과 함께 '대한민국 소극장 페스티벌'에 참여했던 부산 '공간아트컴퍼니' 등이 릴레이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타 장르의 경우 다양한 작품을 섭외하는 중이다.

"다시 극장을 오픈하는 데 의미를 부여하자면 담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광주 연극계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어요. 우리 연극이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위를 한다고 할까요. 무엇보다 이게 가야할 길이니깐. 또 제가 하고 싶은 일이니까 하는 거겠죠(웃음)" 문의 cafe.daum.net/pyj2030.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15일 망월동 구묘역에서 열린 김남주 시인 20주기 추모제에 참석한 인사들이 헌화하고 있다.

## 시로 사회변혁 꿈꿨던 김남주

망월동 구묘역서 20주기 추모제· 정치인들도 참석

80년대를 운몽으로 밀고 나간 '전사시인' 김남주(1946~1994) 시인의 20주기(2월 13일) 추모제가 15일 오전 11시 광주 망월동 구 묘역에서 열렸다.

유족과 기념사업회, 민주화 운동단체, 광주·전남작가회의 회원들은 김남주 시인의 묘소를 참배하고 추모사와 추모시 낭독, 추모공연 등을 펼쳤다. 유신 시절 투쟁을 함께 했던 친구 이강 선생과 김준태 시인, 조진태 촌은 계속 유지하며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민중당 강기정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추모 행사에 참석했다. 김남주 기념사업회를 이끌고 있는

김경운(해남고 교사) 회장은 "김남주 시인은 문학을 통해 사회 변혁을 꿈꿨던 시인으로, 기존의 한국 문학이 지향했던 화두를 뛰어넘는 역동적인 시관(詩觀)을 견지했던 민중시인"이라고 회고했다.

고인은 해남 출신으로 전남대 영문과 재학 중 '3선 개헌 반대투쟁'에 참여했다. 이후 1972년 전국 최초의 반유신투쟁 지하신문 '함성'을 제작, 옥고를 치른다. 1974년 '창작과비평'에 '진혼가' 등을 발표하면서 등단했으며 민중운동가로 활동했다. 1993년 사면 복권되었지만 급속히 건강이 악화돼, 1994년 췌장암으로 48세라는 짧은 생을 마감했다.

/박성현기자 kispark@kwangju.co.kr

## '현대미술 거장' 김보현 화백 추도식

18일 美 구겐하임미술관



조선대 미술대학 제1호 교수인 고(故) 김보현(사진·미국명 Po Kim) 화백 추도식이 오는 18일 구겐하임미술관에서 열린다.

실비아월드앤포컴재단 측에 따르면 18일 오후 6시30분 미술관(88스 트리트와 5에브리뉴 입구 사용) 내 피터 루이스시어터에서 추도식을 열 예정이며 장례 행렬은 다음날인 19일 오전 9시30분 영안실이 있는 프랭크 캄벨(1076 매디슨에브리뉴)에서 출발한다.

재단 관계자는 "김 선생님은 지난 7월 97세로 편히 눈을 감으셨다(본보 2월10일자 2·12면)"며 "60년 동안

화가로 살아온 그의 삶을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화백의 유족으로는 조카인 케이조 도마 예시 도마 등이 있다.

뉴욕 한인 1세대 원로 화가인 김 화백은 1917년 경남 창녕에서 태어났다. 조선대 미대 창설 당시부터 10여년간 재직했으며, 구겐하임미술관 과 천 국립현대미술관 등지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한땀 한땀 정성으로 국립광주박물관 21일까지 '손누비 공예' 참가자 모집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중)은 오는 21일까지 '박물관 규방-전통 손누비 공예'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전통 손누비 교육 프로그램은 오는 26일부터 5월14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에 모두 1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예술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우리의 전통 손누비에 대한 이야

기를 들 수 있는 기회다.

전원 염색과 손누비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최숙정 공예가가 진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 손누비에 관련된 강의와 솜 놀기, 실 초 먹이기, 문양 넣기 등 다양한 전통 누비 기법을 배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손누비 기법을 활용해 브로치, 안경집, 동전 지갑, 토시 등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지만 재료비는 별도다. 모든 교육에 참가한 사람들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gwangju.museum.go.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062-570-7068.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특어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20년은 가는데!!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필코팅 시공, 4. 옥상 시공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 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어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건축모델링팀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 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